

## 자력자강의 정신을 틀어쥐고나가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근본방도

박 해 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5~46페이지)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다시말하여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제강국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틀어쥐고나가는것이 경제강국건설의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경제강국건설의 담당자, 주체를 강화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경제강국건설의 담당자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문제는 경제강국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인민의 꿈과 리상은 결코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그 누가 대신하여 실현시켜줄수도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기의 힘으로써만 자기의 리상과 목적을 실현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은 그 어떤 외부의 지원이나 원조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인민들자신의 힘에 달려있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한 진리이다.

우리가 이 땅위에 경제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하자면 우리 인민을 경제강국건설의 주인, 담당자로 키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전체 인민을 자기 손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는 경제강국건설의 담당자, 주체로 훌륭히 키우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는 다름아닌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우선 경제강국건설의 주체인 천만군민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는 사상정신적무기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강한 정신력은 자강력의 정수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천만군민에게 경제강국건설의 담당자는 자기자신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게 한다.

자기 손으로 기어이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의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은 기적과 변혁의 원천이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강할 때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게 된다.

남에게 예속되어서는 경제강국을 건설할수 없으며 남의 경제에 예속된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예속되게 된다.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를 바라지 않고 존엄있고 떳떳하게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이라면

언제나 자기 힘에 대한 불변의 확신,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자기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야 한다.

자립경제강국건설에서 남에 대한 환상, 외세의존만큼 유해롭고 위험한것은 없다.

남의 힘만을 믿는 사대주의자들, 자기 힘은 보잘것없다는 허무주의자들과 패배주의자들은 결코 자력자강의 정신을 지닐수 없으며 언젠가도 제손으로 경제강국을 일떠세울수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기 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경제를 건설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기에 우리 조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예측된 경제가 아닌 자립경제로 온 세상에 그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었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천만군민에게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심어주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이다.

자립경제를 건설하자면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자립경제건설의 길은 결코 평온한 환경이나 모든것이 유리한 조건에서 걷는 길이 아니라 경제강국건설의 앞길을 가로막는 적대세력들의 필사적인 도전, 헤아릴수 없는 고난의 언덕과 시련의 고비들을 맞받아 헤쳐나가야 하는 준엄한 투쟁의 길이다. 고난과 시련을 동반하는 자립경제건설의 길을 끝까지 걸어 최후의 종착점에 도달하자면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도 결사의 각오와 의지와 결합되어야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아무리 자기 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힘에 의거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각오와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수 없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천만군민에게 경제강국을 기어이 자기의 힘으로 건설하겠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어줄뿐아니라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게 한다.

자력자강의 정신에는 바로 자기 힘에 대한 절대불변의 확신과 함께 그 힘을 믿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일관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의 동정이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기 힘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면서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억척같이 투쟁하는 정신력의 최강자로屹세게 자라났다.

참으로 자력자강의 정신은 천만군민이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함께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심장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위력한 무기이며 이 위대한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또한 천만군민을 과학기술력을 지닌 힘있는 창조자로 키우는 사상정신적무기이다.

과학기술력은 자강력의 정수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없을뿐아니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하는 세계경제발전추세를 따라갈수 없다.

경제와 과학기술은 서로 떼어놓을수 없이 밀접하게 련관되어있다.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에서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으며 경제적보장대책은 과학기술발전의 필수적인

전제이다. 경제를 떠난 순수한 과학기술발전이란 있을수 없다.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며 경제적으로 요구에 맞게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보다 높은 단계의 과학기술발전의 담보로 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급속히 높아지고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그 역할을 높여야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고 생산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지식경제시대는 과학기술지식에 의하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이다. 기계제산업시대에 수백년동안 이룩된것들이 지식경제시대에는 몇십년, 지어 몇년동안에 이룩되고있다.

과학과 기술,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일체화되고있는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을 남먼저 돌파해나가는 나라와 민족만이 끊임없는 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과학기술면에서 오늘 한걸음 떨어지면 래일은 열걸음, 백걸음 떨어지게 되며 나중에는 영영 주저앉게 되는것이 지식경제시대의 경제발전특징이다.

첨단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기초이고 민족번영의 위력한 수단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발전의 주되는 요인은 과학기술이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사회의 발전이 곧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며 첨단과학기술의 패권자가 현대산업의 개척자가 되고 문명의 창조자가 되며 세계의 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지금에 와서는 첨단과학기술을 독점하고 자기 나라의 경제적리익을 추구하는것이 하나의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는 나라와 민족들마다 자기의 두뇌진을 리용하여 세계적인것을 압도한 지식자원을 늘여야 경제강국이 될수 있고 남보다 잘살수 있다. 자체의 힘으로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고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할수 있고 인민들이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하게 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결국 새 세기 경제발전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관건적고리는 첨단과학기술을 장악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자력자강하는 유일한 길은 자체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여기에 자립경제강국건설의 유일한 길,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틀어쥐고나가는것이 경제강국건설의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경제분야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기때문이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기고 비렬한 책동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한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면 오직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

오늘의 조건에서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굳게 간직하고 자기 힘을 키워 만난을 뚫고나가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우선 난관극복의 위력한 무기이다.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과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리는 대담한 공격정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비상한 창조본때를 가질 때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제힘으로 뚫고나갈 생각을 하게 되며 투지와 열정도 나오고 묘술과 방책도 찾아내게 된다.

제힘을 믿고 반드시 제힘으로 살아나가야 하겠다는 자각과 각오가 강할 때 인간의 창조력이 최대로 분출되게 된다.

고난과 시련, 가슴아픈 희생을 동반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 강국으로 치달아오르자면 자강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력자강의 길이자 곧 간고분투의 길이며 결사의 각오와 의지의 길이라고 하는것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또한 수입병을 들어내는 무기이다.

수입병은 자강력을 해치는 악성종양이다. 수입병은 눈을 멀게 하고 제정신을 잃게 한다.

수입병은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과 자기자신에 대한 허무감으로부터 나온다. 수입병은 남의것으로 멋이나 부리고 무슨 일이나 품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하려는 낡은 사상관점이다.

다른 나라의것에 대한 환상이 만연되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이 생겨나 자강력이 없어지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 수입병은 결국 굴복이며 혁명포기이다. 여기에 수입병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다.

제힘을 믿고 제힘으로 살아나가려는 자각과 의지가 강하면 수입병에 걸리지 않는다.

수입병을 들어내기 위한 사상전의 불도가니속에서 우리의 자강력은 불순물이 제거된 강쇠처럼 더욱 굳세어질것이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적대세력들의 온갖 적대행위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언제한번 남의 힘에 기대를 걸어본적이 없으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자력자강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왔다. 자력갱생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 혁명은 그 첫 기슭에서부터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를 타승하였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건국의 첫삽을 박고 민주의 새 나라를 일떠세웠다.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었던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전후 재더미우에서 기적의 천리마를 탈수 있는것도, 해방전 농기계 하나 제손으로 만들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갖춘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세상에 위용펼치고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자력자강의 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례없는 대비약, 대변혁을 이룩하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자강력제일주의를 경제강국건설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위한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함으로써 이 땅위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펴나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자력자강, 경제강국